

■ 문헌연구 :

『海南尹氏文獻』

- 海南尹氏 漁樵隱公派 기록 자료의 체계화

김대현* · 박명희**

〈차 례〉

1. 머리말
2. 문헌의 편집 체계
3. 내용 구성의 실태
 - 1) 年月錄, 문중 인물의 관직 생활 자료
 - 2) 續錄①, 문중 인물의 詩的인 교유 자료
 - 3) 續錄②, 문중 인물에 대한 補遺 자료
 - 4) 續錄③, 行狀·墓文 등의 기록 자료
4. 문헌의 가치

1. 머리말

『海南尹氏文獻』은 윤위(1725~1756)가 편찬하였으며, 海南尹氏 漁樵隱公派의 역대 주요 인물에 대한 과거 기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윤위는尹斗緒의 제7자尹德顯의 아들이라는 사실 외에 자세한 행적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과 경위에서『해남윤씨문헌』을 편찬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선조에 대한 그동안의 기록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통하여 조상을 선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를 큰 틀의 형식적인 부분과 자세한 내용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도록

* 전남대학교 / ** 전남대학교

하겠다. 『해남윤씨문헌』은 18세기 대세였던 ‘자기 문중 알리기’ 차원에서 엮어진 책이기는 하지만, 해남윤씨 글정공파가 해남에 터를 잡고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 가문을 뛰어넘어 지역학적인 의미를 지닌다고도 하겠다.

2. 문헌의 편집 체계

『해남윤씨문헌』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을 年月錄 上이라고 하였고, 권2를 年月錄 下②와 散錄·續錄이라고 했는가 하면, 권3을 산록·속록이라고 하였으며, 마지막 권4는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해남윤씨 문중 인사 가운데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인물의 행장, 묘갈문 등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기록 자료들을 한데 모았다. 연월록 상·하의 내용은 해남윤씨 어조은공파의 시조인尹孝貞으로부터 시작하여尹義美(尹善道の 차남)의 아들인尹爾厚까지의 주요 행적을 객관적인 기록 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다. 그리고 산록과 속록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기는 하지만, 연월록 상·하에서 빠진 내용을 정리하여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편집 체계를 통해서 볼 때『해남윤씨문헌』은 일시에 정리되었다기보다는 여러 해를 거듭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여러 문헌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문헌 자료와 추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집의 경우 부호 생략)

- 慕齋集 - 金安國의 시문집으로 주로尹衢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2) 『해남윤씨문헌』권2는 내용상으로 보면, 권1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도 특별히 권2를 散錄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윤위가 편집을 할 때 내용상으로는 권2가 권1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권2 뒤편에서 연원록이 끝나고, 續錄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산록이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孤山遺稿 - 尹善道の 시문집으로 주로 윤선도에 대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 眉巖日記 - 柳希春의 친필 일기로 주로 尹弘中과 그의 아들 士晦에 대한 내용 및 윤구의 셋째 동생인 尹復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考事撮要 - 1554년(명종9) 魚叔權이 편찬한 類書로 조선시대 事大交隣을 비롯, 일상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일반 상식 따위를 뽑아 엮은 책으로 주로 尹毅中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露峰集 - 高敬命의 개인 문집으로 주로 윤의중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荷谷朝天錄 - 許筠이 1574년에 성절사 朴希立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쓴 기행문으로 주로 윤의중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栗谷集 소재 經筵日記 - 李珣가 1565년(명종20)부터 1581년(선조14) 11월까지 17년간의 중요한 시사를 일기체로 기록한 책으로 「石潭日記」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주로 윤의중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重峯集 - 趙憲의 시문집으로 주로 윤의중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時政錄 - 鄭澈의 家藏 野史集으로 주로 윤의중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癸甲日錄 - 조선중기 문신이며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禹性傳이 1583년(선조16)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의 정치기사를 일기체로 엮은 책으로 주로 윤의중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姜紳日記 - 鄭汝立 獄事의 처리에 참여하여 平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晉興君에 봉해졌던 姜紳이 쓴 일기문으로 주로 윤의중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孤山年譜 - 윤선도의 연보를 적은 책으로 주로 윤선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尤庵集 - 宋時烈的 문집으로 주로 윤선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瑞石集 - 金萬基의 시문집으로 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龍洲集 - 趙綱의 문집으로 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支菴日記 - 윤선도의 손자인 尹爾厚가 1692년 1월 1일부터 1699년 9월 9일까지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일기로 『持平公日記』라고도 하는데, 주로 윤선도 및 尹爾錫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 定齋集 - 朴泰輔의 시문집으로 주로 윤선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

다.

- 己丑錄 - 黃赫이 1589년의 己丑獄事에 관한 일을 여러 문헌에서 뽑아 엮은 책으로 李滉, 尹光啓 등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蘇齋集 - 盧守愼의 시문집으로 윤구의 동생인 尹衡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河西集 - 金麟厚의 시문집으로 윤향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思齋集 - 金正國의 시문집으로 윤구와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十淸軒集 - 金世弼의 시문집으로 윤구와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湖陰集 - 鄭士龍의 시문집으로 윤구와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靈川先生集 - 申潛의 시문집으로 윤구와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古玉集 - 鄭曙의 시문집으로 윤의중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願菴集 - 宋寅의 시문집으로 윤의중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栢潭集 - 具厥齡의 시문집으로 윤의중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玉峯集 - 白光勳의 시문집으로 윤의중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橘屋集 - 尹光啓의 시문집으로 윤의중과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石樓集 - 李慶全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九峯集 - 宋翼弼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白江集 - 李敬輿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시문을 추출하였다.
- 記言 - 許穆의 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明谷集 - 崔錫鼎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西溪集 - 朴世堂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炭翁集 - 權詒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愚得錄 - 鄭介淸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夢嚙集 - 南克寬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東溪集 - 趙龜命의 시문집으로 윤두서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陶齋集 - 尹昕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芝湖集 - 李選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荷潭日錄 - 金時讓의 수필집으로 荷潭破寂錄이라고 하는데,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明村雜錄 - 羅良佐의 수필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朝野記聞 - 徐文重의 저술로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同春集 - 宋浚吉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靜觀齋集 - 李端相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樂泉集 - 南九萬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明齋遺稿 - 尹拯의 시문집으로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稗官小錄 - 魚叔權의 야담집으로 윤구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己卯錄 - 安邦俊이 지은 것으로 윤구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思齋拙言 - 김정국이 지은 수필집으로 윤구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己卯黨籍 - 김정국이 지은 것으로 윤구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撫松小說 - 金命時가 지은 것으로 윤구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湖堂錄 - 호당(독서당)에서 공부한 사람을 기록한 인명록으로 윤구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抗議新篇 - 李廷龜가 지은 것으로 윤홍중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接倭歷年圖 - 작자 미상이나 윤홍중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海南尹氏家乘 - 해남윤씨 문중 인물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윤의중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國朝先生案 - 각 官衙에서 前任 관원의 주소·성명·관직명·생년월일 등을 기록하여 배치하는 文簿로 윤의중과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였다.
- 芝峯類說 - 1614년에 李暉光이 편찬한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로 윤의중에 내용을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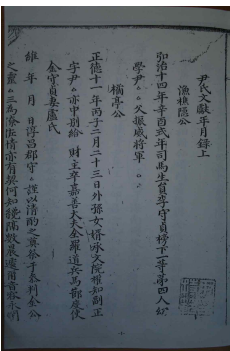
이 외에도 宣廟寶鑑, 牛蛇雜記, 尹氏族譜 등의 문헌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추출했을 뿐 아니라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더 많은 문헌들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 예시된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윤선도와 관련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윤선도와 관련된 자료가 풍부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남윤씨 문중에서 차지하는 윤선도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이상 『해남윤씨문헌』의 대강의 체제와 추출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체제의 경우, 연월록 상·하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외의 자료들은 산록·속록 형태로 덧붙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따지면, 크게 연월록과 산록·속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산록·속록의 내용은 다소 산만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일목요연하지 않은 점이 엿보인다. 그리고 산록·속록은 내용별로, 문중 인물과 관련된 시문의 나열, 해남윤씨 문중에서 가장

내세우는 인물인 윤선도와 당시 치열하게 전개된 禮訟 논쟁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장·묘문 등의 기록 자료를 통한 문중 인물들의 생전의 행적 추적 등으로 나누기를 알 수 있다.

3. 내용 구성의 실례

1) 年月錄, 문중 인물의 관직 생활 자료



<권1 소재 연월록의 첫 부분>

연월록에서는 말 그대로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연도와 월일 순을 지켜가며 정리하였는데, 대상 인물은 尹孝貞, 尹衢, 尹復, 尹弘中, 尹毅中, 尹唯深, 尹唯幾, 尹善道, 尹仁美, 尹爾錫, 尹爾厚 등이다.

먼저 윤효정(1476~1543)은 어초은공이라고 하여 1501년(연산군7) 李守貞榜에 생원이 된 기록만 적었는데, 그 중요도에 비할 때 극히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윤효정의 장남인 橋亭公 윤구(1495~?)의 기록 내용은 윤효정에 비할 때 다소 구체적이는데, 특히

1519년~20년 사이에 金世弼·閔耆伯 등과 함께 중국을 다녀온 일을 적었다. 그리고 辛卯年³⁾ 8월에 南平鄉校에서 海南鄉校로 보낸 通文 및 9월에 적은 해남향교 答通文이 실어져 있는데, 林德齡과 윤구를 기릴 것을

3) 辛卯年은 1651년(효종2)으로 추정함.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한 1676년 전라도 유생들이 館學 및 경상도의 학교·서원에 통문한 내용이 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억령과 윤구 외에 崔溥와 유희춘 등을 추가해서 배향할 것을 적었고, 같은 해 8월의 해남향교로 보낸 통문에는 윤선도를 추가한 다섯 사람을 함께 기릴 것을 적은 글을 수록하였다.

윤효정의 四男인 杏堂公 윤복(1512~1577)에 대해서는 1538년 李萬榮榜에 乙科 제1인으로 생원이 된 기록만을 적었다.

윤구의 장남인 正郎公 윤홍중(1518~1572)에 대해서는 1546년 崔應龍榜 丙科 제17인으로 합격한 기록을 우선 적고서 『미암일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윤홍중이 죽은 이듬해인 1573년에 臺官이 올린 啓를 수록하였다. 그 계문 내용의 요점은 ‘이미 세상을 뜬 윤홍중의 아들인 士晦가 아버지의 침과 간통을 하고 칼을 뽑아 그 아버지를 내쫓아 죄악이 크므로 임금께서 잡아다가 추국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헌부에서 올린 비슷한 내용의 계문을 또 수록하여 事實이 작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윤홍중과 관련된 내용은 그의 아들인 사회의 죄악을 주로 알리는 것에 치중했음을 볼 수 있다.

윤구의 차남인 駱川公 윤의중(1524~1590)과 관련해서는 1559년에 漢人 蘇才 등 326명이 倭에 납치된 후 황해도 등지에 표박하여 이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겸한 冬至使가 되어 공훈을 세운 일을 적었다. 그리고 평안도관찰사 시절의 업적을 적었으며, 뒤이어 鄭汝立 獄事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윤의중의 행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윤의중은 정여립 옥사 사건으로 東人의 지도자로서 정여립과 친하고, 이발의 외숙이라고 하여 이 이를 비롯한 西人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라도 유생 丁巖壽가 蓄財를 비난하는 탄핵 상소문을 올림으로서 이런 사건들에 연좌되어 결국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윤의중의 장남인 副正公 尹唯深(1551~1612)과 관련해서는 1576년에 생원 시험에 합격한 내용을 적었다.

윤의중의 차남이면서 윤홍중의 양자로 들어간 滄洲公 尹唯幾

(1554~1619)와 관련해서는 주로 거처간 관직을 나열한 한편으로 1595년 중국을 다녀온 기록 등을 적었으며, 1616년(광해군8)에 兩司가 승락한 내용 및 경상도 유생 南自新이 상소한 내용을 보았다. 그 기록의 요점은 윤유기와 윤선도는 천하의 비윤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변방에 안치시키라는 것인데, 당시 東西 朋黨期에 윤유기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윤유심의 차남이면서 윤유기의 양자로 들어간 忠憲公 윤선도(1587~1671)에 대한 기록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때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1616년 12월 25일에 양사가 함께로 윤선도를 변방에 安置시킬 것을 광해군에게 아뢴 내용부터 적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있기 4일 전에 윤선도는 성균관 유생으로서 李爾瞻·朴承宗·柳希奮 등 당시 집권 세력의 죄상을 날날이 규탄한 상소문(『丙辰疏』)을 올린 바 있는데, 이 상소문이 발단이 되어 당시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들의 비난을 받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 사건은 윤선도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윤위도 『해남윤씨문헌』을 편찬함에 이를 크게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양사의 합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함께 윤선도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문과 함께 윤선도를 지지하는 상소문이 수차례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해남윤씨문헌』에는 閔濬·李博芳·李洞·宗室의 龜川君 晔와 錦山君 誠胤·남자신·郭瓔·李埴 등의 상소문을 실었다. 윤선도는 이때 결국 함경도 慶源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1년 뒤 경상남도 장기로 移配되었다가 1623년 仁祖反正으로 이 이점 일과가 처형되면서 유배가 풀리게 되었다. 그런데 『해남윤씨문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바로 1628년의 사건으로 넘어갔다. 윤선도는 1628년에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鳳林大君과 麟坪大君의 스승이 되었는데, 『해남윤씨문헌』에서는 이를 크게 부각시켰다. 그리고 효종이 왕이 된 후 윤선도를 부른 일을 기록하였으며, 특별히 관직을 계승한 일, 여러 사람들이 윤선도를 褒貶하며 상소문을 올린 내용들을 선별하여 내용으로 엮었다. 특히, 윤선도가 鄭介淸을 옹호한 데

에 대해서 반대파들이 질책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진 남인과 서인간의 예송논쟁과 관련된 내용을 열거하였다. 조선조에는 두 차례의 예송논쟁이 있었는데, 윤선도와 관련된 예송논쟁은 첫 번째 논쟁으로 흔히 ‘己亥禮訟論爭’이라고 부른다. 1659년 효종이 세상을 뜨자 그의 계모인 慈懿大妃가 효종의 상에 어떤 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남인과 서인간에 논쟁이 일어났다. 윤선도는 이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1660년(현종1)에 상소문을 올리면서 3년 상을 주장하기에 이르는데, 宋時烈을 비롯한 서인들은 1년 상을 주장하며 윤선도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1660년에 올린 윤선도의 상소문이 발미가 되어 서인과 대립하기에 이르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함경도三水郡에 안치되는데, 이런 내막을 『해남윤씨문헌』에서는 적었다. 복제에 대한 논란은 윤선도가 유배를 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봉당의 와중에서 서인과 남인간의 권력 다툼이 어느 정도였지는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과 아울러 윤선도가 死後에 ‘忠憲’이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것, 전라도 유생 羅斗夏 등이 상소를 올려 정개칭의 嗣字를 중건할 것을 청한 것, 전라도 유생 鄭武瑞 등이 상소하여 鄭澈의 官爵을 追奪하기를 청한 상소문 등 서인과 남인간의 세력 다툼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해남윤씨문헌』 연월록 상·하에서는 윤선도를 주로 정치인으로 부각한 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윤선도의 장남인 獻納公 尹仁美(1607~1674)에 대한 내용에서는 1678년 그의 아들 尹爾錫이 繕工監役 벼슬에 있으면서 자신의 조부인 윤선도와 부친인 윤인미가 誣陷을 당했음을 임금께 올린 것과 함께 윤인미에게 주어진 증적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상황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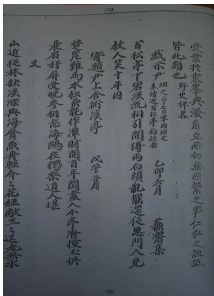
윤인미의 장남 典簿公 윤이석과 관련해서는 1678년 8월 속중계 疏陳한 내용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윤이석은 조부와 부친이 무함을 당했음을 알렸는데, 이때 孝廟의 御札 5폭도 함께 올리니 특별히 6품의 벼슬을 내리면서 尼山縣監이 된 사연을 적었을 뿐

아니라 1689년 司僕主簿와 漢城府判官, 宗親府典簿 등의 벼슬에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윤선도의 3남 尹禮美의 양자로 들어간 持平公 尹爾厚에 관련해서는 1692년 함평현감 시절 兵曹參知 李玄紀가 올린 상소문등을 통하여 윤이후의 관직생활의 모습을 보였다.

이상 윤효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윤이후까지 11인의 벼슬 생활에서의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살폈다. 이들 자료는 물론 앞 2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확실한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는 편집자인 윤위가 자신의 문중 인물이라고 하여 무조건으로 顯彰하는데 힘 쓴 것이 아니라 비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다.

2) 續錄①, 문중 인물의 詩的인 교유 자료



<권2 소재 수록 시문의 일부분>

연월록 상·하를 이어 수록 처음 부분에서는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와 관련된 시문이 나열되어 있다. 그 詩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시제의 부호는 생략)

- 獻示尹 坦之○十七日凍雨坦之來請遊百松亭釣銀唇
- 寄題尹上舍衡溪亭 두 수
- 次金厚之寄題尹坦之亭子韻 九月按厚之河西字坦之尹衡字
- 次韻二同年相和 金慶老過尹坦之二子俱我同年也
- 次大菴僧道衍軸中韻(이상 노수신의 시문)

- 尹進士友衡衡之往海南付寄尹同年孝貞希參暨其子尹佐郎衢亨仲(이상 김안

국의 시문)

- 次韻酬答亨仲(이상 김정국의 시문)
- 劍水驛次亨仲話別崔學令山斗韻
- 黃州客館夜吟聯句
- 統軍亭夜飲聯句二首
- 次州官設筵餞行韻二首
- 遼陽館夜飲聽琴吹亨仲韻
- 連日坐車錄呈亨仲者伯
- 過孤竹故城 次亨仲韻
- 漁陽驛次亨仲韻
- 玉河館次亨仲夜吟韻二首
- 訪石鼓錄懷呈亨仲者伯
- 次亨仲訪石鼓韻
- 文丞相廟次亨仲前韻(이상 김세필의 시문)
- 藏春堂夜話贈尹亨仲 藏春泰仁宋世球堂名(이상 정사룡의 시문)
- 送尹亨仲赴全羅幕
- 十七夜遇橋亭飲酒有感用貞曜先生韻書示
- 是夜橋亭出示景仰所贈一絕次韻以示
- 戲次橋亭香奩韻以亂夫遺意噫此豈善爲謔者耶
- 書懷二首奉寄橋亭兼示仁補
- 仲春初與亨仲子潤會奉謁齋先生遊寶林寺西溪
- 頃承訥齋先生和韻不勝欣歎之至仍綴荒句以成七言三律送尹亨仲之行奉呈訥齋案下用希斥正
- 橋亭惠豆詩以謝馬
- 次橋亭感春香奩韻
- 風雪中橋亭欲還爲賦一絕挽之
- 雨中除夕意甚凄愴夜久不寐遂賦七律明日錄奉橋亭
- 人日後日橋亭挽佑之馳書約我共尋白蓮社余喜甚遂以詩先之云
- 與亨仲約會于白蓮社以雨不至作此寄之
- 萬德山中馬上次亨仲韻口號示之
- 吉甫還鄉橋亭詩以贈之余玩數二遂用其韻錄奉行軒
- 秋思三篇錄奉石川先生兼簡橋亭主人求和
- 送驢子于橋亭
- 題安節所藏青山白雲圖示橋亭(이상 신잠의 시문)
- 白蓮洞憶橋亭(이상 閔興顏의 시문)

- 感尹元禮(이상 유희춘의 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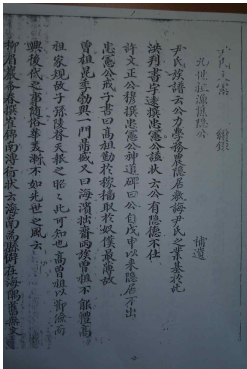
이상 노수신, 김안국, 김정국, 김세필, 정사룡, 신잠, 민홍안, 유희춘의 시문을 예시하였다. 물론 여기의 시문이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와 관련된 전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무수한 작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남윤씨문헌』에서는 시문을 한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유희와 윤구, 윤복과 관련된 시문에 국한시켰는데, 윤희중 이하와 관련된 시문은 권3 別錄 坤 제2에서 다시 열거한 것을 보면 편집자 나름대로 인물을 전후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권3 別錄 坤 第2에 나열된 시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次駱川韻(이상 정작의 시문)
- 送尹駱川赴京(이상 송인의 시문)
- 送尹監司致遠赴關西任(이상 구봉령의 시문)
- 呈尹學士
- 寄呈理遺堂
- 奉別駱川相公
- 謝駱川相公寄日曆
- 奉別駱川相公還朝
- 贈尹通甫別
- 代通甫席上有贈
- 別尹成甫(이상 백광훈의 시문)
- 奉送參議兄西行(이상 윤광계의 시문)
- 答尹星州善道寄歲韻(이상 이경전의 시문)
- 伏呈尹丈行軒(이상 趙重岳의 시문)
- 舟中有懷錄呈尹先達丈轉徹老翁行軒(이상 李同揆의 시문)
- 再拜和呈尹參議案下(이상 麟平大君의 시문)
- 奉呈尹星山仙案下求和教(이상 송익필의 시문)
- 이하의 시제는 생략함⁴⁾

4) 시제의 예시를 생략한 이유는 작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체제가 어지러워 가락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문중 인물들의 인적인 관계망이다. 시문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서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교류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3) 續錄②, 문중 인물에 대한 補遺 자료



<권3의 보유 자료 수록 첫 부분>

권3은 수록으로서 권1~2에서 다하지 못한 내용을 덧붙여 『해남윤씨 문헌』에서는 이를 보유하고 하였다. 순서는 앞의 권1~2와 마찬가지로 윤효정부터 시작하여 윤이후까지 이어졌는데, 앞의 권1~2의 자료를 연월을 지켜가며 주로 벼슬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면, 권3의 보유는 앞의 내용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면서 후대인들의 평을 바탕으로 성품과 교류인물 등을 부각시켰다.

먼저 윤효정과 관련해서는 『윤씨 족보』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윤효정은 학문과 농사에 힘을 쏟았을

뿐 아니라 은거하면서 가르치고 깨우쳤으니 윤씨의 基業이 여기에서 말미암았다.’라고 하여 해남윤씨 어조은공파의 시조임을 알렸다. 그리고 洪宇遠이 『忠憲公謚狀』에서 말한 ‘덕을 감추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와 허목이 『忠憲公神道碑』에서 언급한 ‘무신년 이래로 은거하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었다. 또한 유희춘이 쓴 『崔縮南溥行狀』가운데 윤효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기록하였는데, 윤효정·林遇利·柳成春 세 사람이 최부의 문인이었음을 알리고 있으며, 젊은 시절 우연히 南哀을

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나 결국 그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여 己卯土禍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윤구와 관련해서는 『충헌공시장』·『기묘록』·『사제척언』·『기묘당적』·『패관소록』·『무송소설』·『호당록』·『십청헌집』 등의 문헌 자료를 근간으로 내용을 엮었다. 그 주된 내용은 기묘사화와 관련된 것이거나 최산두·유희춘 등과 아울러 ‘湖南三傑’이라고 칭한 것, 남곤과의 인연, 중국을 갈 때의 인연으로 인하여 김세필과 주고받은 酬唱詩가 10여 편 정도 된다는 것 등이다.

윤복과 관련해서는 李滉의 문하에서 노닐었다는 내용과 함께 『무송소설』의 기록을 빌어 와 노수신과의 친분이 막역했음을 적었다. 노수신이 일찍이 진도로 유배왔을 때 從遊한 인연으로 노수신이 解配되어 조정에 다시 들어가서는 윤복을 玉堂에 들어가도록 선발하였고, 그 후로 修撰·郊理 등과 같은 벼슬에 올랐다고 하였다. 한편, 편집상의 오류인지는 몰라도 윤홍중의 기록 내용이 다소 들어 있어서 읽는 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홍중과 관련해서는 『황의신편』·『집왜역년도』·『고사촬요』 등의 문헌 자료를 근거로 내용을 엮었다. 그 요점은 을묘왜변 당시 매복전술로 왜구를 사살하고 퇴각시켜 해남을 보존했다는 것과 韓愈의 문장에 심취하여 많은 이들이 한유의 문장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으면 윤홍중에게 와서 물었다는 것, 활쏘기를 잘 하였으며, 金安老가 별인 연회에 가서 시문으로 김안로를 풍자했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동생인 윤의중의 자료가 또한 중간에 들어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의중과 관련해서는 『선조보감』·『석담일기』·『무송일기』·『제봉집』·『가승』·『국조선생안』 등을 근거로 내용을 작성하였다. 주된 내용은 기록 때 이발의 외숙이라고 하여 탄핵을 받은 것, 노수신·盧禕 등과 친하였으며, 특히 노수신과는 申光漢이 뽑아서 호당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윤유심·윤유기가 부친 윤의중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올린 『籲冤疏』의 전문도 실었다.

윤유심과 관련해서는 長湍府使와 禮賓寺副正 등의 벼슬을 거쳐간 것, 젊어서 白光勳과 친했다는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윤유기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단지 윤유기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윤선도를 비롯한 후손들까지 함께 아올렸다. 윤선도와 관련해서는 그의 나이 30세에 올린 병진소로 인하여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간 것을 비롯하여 당시 반대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 유배 가던 중 만났던 趙生이라는 官妓와의 인연 등이 주된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또한 李敬輿가 1646년 昭顯世子の 빈 姜氏의 賜死를 반대하다가 진도로 유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화답한 시문과 허목과의 인연 등을 적었다.

윤인미와 관련해서는 먼저 자[子壽]와 호[牢癡], 생년, 거쳐간 주요 관직 등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언급하였다. 그리고 허목이 쓴 윤선도의 신도비의 내용을 인용하여 부친 윤선도가 74세의 나이로 三水에 위리안치 되니 그로 인하여 13년간 禁錮된 일, 부친에 대한 효가 지극한 일, 醫藥·卜筮·堪輿에 능하여 같은 고을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내용 등을 나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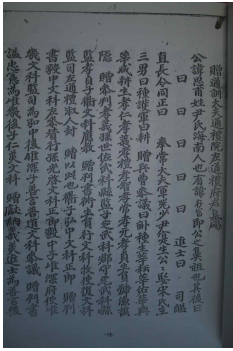
進士公 尹義美(1612~1636)는 윤선도의 차남으로 연월록에는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 속록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였는데, 우선 자[子方]와 윤선도의 차남이라는 사실과 윤선도의 형님인 尹善言의 양자로 들어간 일, 19세에 進士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25세에 생을 마감하니, 부친 윤선도가 심히 애통해해 하며 지었다고 하는 哀悼詩를 실었다. 또한 윤의미의 부인은 東萊鄭氏로 남편이 죽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윤이후를 출산하였는데, 며칠 후 곧 죽음에 이르렀다고도 하였다.

윤이석과 윤이후에 대한 속록은 별권의 묘갈문으로 대신한다고 하면서도 윤이후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작성하였다. 그 내용의 요점은 윤선도가 어려서부터 매우 특별히 생각하였고, 용모는 단아하고 행동거지는 안온하고 자상하여 한 번 보면 단정한 선비[端士]임을 알 수 있으며, 권력에 스스로 아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도 하였다.

지금까지 속록의 두 번째인 문중 인물에 대한 보유 자료의 내용을 살폈다. 속록에는 또한 이러한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의 外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윤의중·윤선도·윤인미·윤이후에 대한 내용 가운데 빠진 부분을 보충하였다. 윤의중과 관련해서는 1586년에 提調의 벼슬에 올랐던 사실과 許疇·朴淳 등과 동시대에 벼슬을 함께 했던 일, 관서관찰사가 되어서 君子樓를 세우고 기문을 지었던 일, 동서지간인 양응경과의 일화 등을 적었다. 윤선도와 관련해서는 기해예송논쟁 당시의 秘史와 함께 1616년 경원으로 유배 갈 때 8세였던 장남 윤인미와 함께 갔었다는 것, 1665년 79세의 나이로 光陽으로 유배지가 옮겨진 후 거기에서 겪은 작은 일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윤선도의 은거지인 甫吉島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는데, 현지의 자세한 형세와 함께 그곳의 자연물과 인공물들인, 가령 樂書齋·無悶堂·小隱屏·石室·升龍臺·曲水堂·朗吟溪·書齋·蓮亭·造山·夏寒臺·赫義臺·石田·靜成菴·浩然亭 등에 대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윤인미의 경우, 직접 그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睦某라는 사람의 조모가 병이 걸렸을 때 윤선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적었고, 윤이후와 관련해서는 젊어서 꾸었던 꿈을 언급하며, 훗날 결국 大小宗의 後嗣를 이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권3 『별록』 곧 제2에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시문들 외에 윤선도를 정점으로 그 전후의 문중 인물 또는 관련된 인사들에게 준 편지 및 일화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퇴계집』, 『미수기인』, 『글옥집』, 『울곡집』, 『용주집』, 『명곡집』, 『서계집』, 『탄옹집』, 『동계집』, 『몽예집』, 『도계집』, 『지호집』, 『석담일록』, 『명촌잡록』, 『송자대전』, 『동춘당집』, 『정관재집』 등에서 추출한 내용들이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은 윤선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續錄③, 行狀·墓文 등의 기록 자료



<권4의 행장·묘문 수록 첫 부분>

여기의 내용은 바로 권4에 수록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편의상 수록③으로 설정하였다. 권4의 내용의 처음 부분에서는 해남윤씨 글정공파의 역대 과거시험 합격 상황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尹思甫(묘갈문), 윤복(행장), 윤복(신도비), 윤의중(墓表陰記), 윤광계의 계모 남씨(家狀), 윤선도(가장), 신도비명(윤선도), 윤이석(묘지문), 尹爾久(묘갈문), 윤이후(묘지문) 등 문중 인물들의 행장 및 묘갈문 등을 나열하였다. 이들은 해남윤씨 글정공파 문중 인물들의 약력 및 행력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로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4. 문헌의 가치

지금까지 『해남윤씨문헌』의 전체 편집의 체제와 내용 구성의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는데, 다음은 『해남윤씨문헌』에 등장한 인물들을 간단히 표로 나타낸 것이다.

『해남윤씨문헌』에 등장한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인물의 약도	
尹孝貞 - 衢 - 弘中 ... 唯幾 ... 善道 - 仁美 - 爾錫	
	- 義美(出)
	- 禮美 ... 爾厚
毅中 - 唯深 - 善言 ... 義美 - 爾久	
	- 爾厚(出)
	善道(出)
	唯幾(出)
衢	
復	

위 도표의 인물 중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윤선도에게 많이 할애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중요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윤구, 윤의중과 같은 인물들이 해남윤씨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윤선도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문중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보면, 윤위는 『해남윤씨문헌』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문중을 널리 알리고, 근본을 세워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해남윤씨 글정공파와 관련된 객관적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1~2까지 연결된 연월록의 내용은 이미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정리한 것들이다. 이는 문중 인물 한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전체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령, 윤의중과 정여립 옥사 사건, 윤유기와 윤선도의 분당기 개입으로 인한 유배 등은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로 주관적인 意思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하겠다. 즉, 대개의 경우 문중을 알리고자 할 때는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이 되어 역사 속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치부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해남윤씨문헌』은 적어도 그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둘째, 객관적인 역사 자료 외의 야사적인 내용까지 포괄함으로써 해남 윤씨 굴정공파와 관련된 무명의 역사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야사적 기록까지 찾아낸 것은 편집자의 권한이면서 역량이기도 한데, 비록 객관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요성은 인정할 때문이라고 하겠다. 야사적인 기록은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긴요한 자료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역사에서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엿볼 수 없는 行間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야사적인 내용의 眞僞 여부는 일단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자료적 가치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